



임상실습 교수효율성과 임상실습교육환경이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 지 영¹⁾ · 박 현 숙²⁾

서 론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은 실용학문으로 이론 강의만으로는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임상적 판단 및 태도교육을 학습할 수 없으므로 실습교육은 간호교육에 있어서 필수적이다(Kim, Nam, & Kim, 2004). 최근 임상 의 흐름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다른 보건의료요원들의 급격한 지적수준의 향상, 기술의 향상 그리고 간호사들의 분야별 전문화과정으로 인해 간호교육과 실습이 변해야 함은 물론 학생들의 질적인 임상실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Adams, 2002).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은 간호실무 상황에서 적절한 지식, 판단, 기술을 통해 능숙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간호교육의 핵심은 임상수행능력을 교육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다(Barrett & Myrick, 1998). 간호교육에서 임상수행능력은 학습한 지식, 기술, 태도, 자아인지, 동기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자들이 기대하는 교육과정의 최종산물로서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통해 경험하고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Zhang, Lux, Arthur, & Wong, 2001).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병동수간호사, 프리셉터, 실습지도 교수들의 지도역량, 대인관계, 실습환경에 대한 만족도 등이다(Choi, E. H., 2009; Jerlock, Falk, & Severinsson, 2003; Yang, 2009).

특히 간호대학생들이 실습과 역할수행을 효율적으로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에게 실습에 임

하는 태도와 조직적인 기술과 자신감을 주고 학습을 성공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과 능력, 원조자로서의 역할, 인간관계 능력, 효율적인 교수법 등을 갖춘 교수자의 교수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Nahas & Yam, 2001; Yu et al., 2008). 임상지도자들의 행위는 학습의 결과를 감소시킬 수도 있고 긴장을 증가시킬 수도 있으며, 교수의 긍정적인 특성들은 학생들의 자아개념과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Close, Koshar, & Del Carlo, 2000),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Clare, White, Edwards, & Van, 2002).

임상실습교육환경은 간호대학생들의 임상학습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총체적인 것으로(Chan, 2001), 임상환경에서 상호작용하는 힘들의 네트워크이다(Dunn & Burnett, 1995). 임상실습교육환경은 간호대학생이 간호기술과 지식을 획득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며, 실습을 위한 준비와 조직적인 기술, 그리고 역할 수행의 자신감을 가지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Chan, 2001; Midgley, 2006). 임상실습교육환경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실습관련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실습에 있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Choi, G. Y., 2009; Yang, 2009) 임상수행능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까지 간호학에서 임상실습과 관련하여 임상실습 교육의 교수효율성(Choi, 2005; Kim, 1996; Yu et al., 2008)과 임상실습환경(Choi, G. Y., 2009), 임상수행능력(Cho, 2005; Choi, 2005; Yang, 2009)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교수효

주요어 : 간호대학생, 교수효율성, 임상실습교육환경, 임상수행능력

1) 신라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

2)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교신저자 E-mail: pbs@ikw.ac.kr)

접수일: 2011년 3월 25일 1차 수정일: 2011년 6월 21일 2차 수정일: 2011년 8월 4일 게재확정일: 2011년 8월 12일

율성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의 연구가 교수효율성에 대한 단일변수에 관해 이루어져왔으며, 임상실습환경과 관련해서는 실습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임상실습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에 해당하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교수효율성과 임상실습교육환경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교수효율성과 임상실습교육환경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임상실습교육의 질적인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교수효율성, 임상실습교육환경 및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가 인지하는 교수효율성, 임상실습교육환경 및 임상수행능력을 파악한다.
-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교수효율성 및 임상실습교육환경이 관련성을 파악한다.
- 교수효율성과 임상실습교육환경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용어의 정의

● 교수효율성(teaching effectiveness)

교수효율성이란 교수가 다양한 교수활동을 통해서 정해진 교육목적을 달성한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Reeve (1994)가 개발하고 Kim (1996)이 번안한 도구를 수정·보완한 Yu 등(2008)의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수 효율성 인지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임상실습교육환경(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CLE)

간호대학생들의 임상학습 결과에 영향을 주는 임상환경에서 상호작용하는 힘들의 네트워크이다(Dunn & Burnett, 1995). 본 연구에서는 Dunn과 Burnett (1995)이 개발한 도구를 Han (2010)이 번역하여 측정된 값을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교육환경이 적절함을 말한다.

● 임상수행능력(Clinical Competency)

간호학생이 개인의 특성과 상황이 다양한 임상장소에 따라 어떻게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Lee, Kim, Yoo, Huh, & Lim, 1990), 본 연구에서는 Lee 등

(1990)이 개발하고 Choi (1992)가 수정·보완한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교수효율성, 임상실습교육환경,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임상실습 교수효율성과 임상실습교육환경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두 개의 광역시에 소재하는 2개의 4년제 간호학과와 2개의 3년제 간호과에 재학 중인 2학년, 3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편의표출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모두 임상실습을 한 경험이 있으며 설문을 이해하고 응답이 가능하며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대상자수는 연구의 검정력 확보를 위해 Erdfelder, Faul과 Buchner (1996)에 의해 개발된 G*POWER 3.1을 통해 산출하였으며 유의수준(α) .05, 검정력(1- β) .80의 크기(f^2)를 0.15 (중간크기)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예측 검정력을 유지할 수 있는 표집수가 118명 이상이었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0년 4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설문조사에 의해 무기명식으로 강의가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강의실에서 조사하였다. 먼저 연구자가 대상자들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에 대한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되고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으며, 서면동의를 구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개별적으로 작성하도록 한 후 현자에게 직접 회수하였으며, 설문지를 다 작성하는 데 약 10분 정도 소요되었다. 설문지는 총 280부가 배부되었고 그 중 276부가 회수되었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한 8부를 제외하고 268부(95.7%)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도구

● 임상실습 교수효율성

Reeve (1994)이 개발하고 Kim (1996)이 번안한 도구를 수정·보완한 Yu 등(2008)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37문항으로 5요인으로 분류되어 있다. 하부요인은 전문지식과 능력 6문항,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11문항, 원조자로서의 유용성 6문항, 격려와 지지 5문항, 교수법과 평가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수효율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Yu 등(2008)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95이었고 요인별로는 전문지식과 능력(.86),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86), 원조자로서의 유용성(.83), 격려와 지지(.74), 교수법과 평가(.80)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4이었으며 요인별로는 전문지식과 능력(.70),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86), 원조자로서의 유용성(.87), 격려와 지지(.84), 교수법과 평가(.85)이었다.

● 임상실습교육환경(CLE)

Dunn와 Burnett (1995)이 개발하고 Han (2010)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원 도구는 총 23문항이나 사전조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에서 상관관계(r)가 .30이하인 4문항을 제외하고 총 19문항으로 직원과 학생의 관계 3문항, 병동분위기 3문항, 간호관리자의 수행 5문항, 환자와의 관계 4문항, 학생 만족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식 평정척도로 되어 있으며, 긍정적인 문항 16문항, 부정적인 문항 3문항으로 부정적인 문항은 역환산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교육환경에 대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원 도구의 초기 타당도 검증에서 Cronbach's alpha는 각 하위영역별 .63 - .85 (직원과 학생의 관계 .77, 권위와 관습 .70, 간호관리자의 수행 .80, 환자와의 관계 .63, 학생만족 .85)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는 .85 (직원과 학생의 관계 .70, 병동분위기 .61, 간호관리자의 수행 .70, 환자와의 관 .61, 학생만족 .82)로 나타났다.

● 임상수행능력

Lee 등(1990)이 개발하고 Choi (1992)가 수정보완한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지각된 임상수행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5개 영역의 총 4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간호과정(11문항), 간호기술(11문항), 교육협력관계(9문항), 대인관계, 의사소통(6문항), 전문직 발전(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6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Choi (1992)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는 .95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는 .95 (간호과정 .85, 간호기술 .90, 교육, 협력관계 .89, 대인관계, 의사소통 .85, 전문직 발전 .83)이었다.

자료 분석 및 검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처리 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로 구하였다.
-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구하였다.
- 대상자가 인지하는 교수효율성, 임상실습교육환경 및 임상수행능력은 평균, 표준편차로 구하였다.
- 교수효율성, 임상실습교육환경 및 임상수행능력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 교수효율성, 임상실습교육환경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21-25세가 136명(50.7%)으로 가장 높았으며 26세 이상은 14명(5.3%)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253명(94.4%), 남학생이 15명(5.6%)을 차지하였다. 학제별로는 3년제가 128명(47.8%)이었고 4년제가 140명(52.2%)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215명(80.2%)이 건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대인관계에 대해서는 좋다가 155명(57.85), 보통이다가 11명(42.2)로 나타났다. 종교에서는 없다가 132명(49.3%)로 가장 많았으며, 임상실습지도는 교수와 수간호사가 함께 한다가 154명(57.6%)으로 가장 많았다. 임상실습 만족도에서는 보통이다가 115명(43%), 만족한다가 66명(24.6%)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에서는 만족한다가 95명(35.5%), 보통이다가 81명(30.2%)으로 나타났다(Table 1).

교수효율성, 임상실습교육환경 및 임상수행능력 정도

대상자들이 인지하는 교수효율성은 5점 척도로 전체 평균 점수는 3.09 (±.53)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에서는 전문지식과 능력 영역에서 3.49 (±.5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원조자로서의 유용성에 대한 영역이 2.83 (±.71)로 가장 낮았다. 임상실습교육환경은 5점 만점에 전체 평균점수는 3.09 (±.50)이었으며, 하위영역 중 학생만족이 3.36 (±.72)로 가장 높았으며 직원과 학생과의 관계가 2.82 (±.77), 병동분위기가 2.82 (±.7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은 6점 척도로 전체 평균점수는 3.94 (±.52)이었으며 하위영역에서 간호기술이 4.07 (±.7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육과 협력관계가 2.93 (±.6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6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 (yr)	≤20	118 (44.0)
	21-25	136 (50.7)
	≥26	14 (5.3)
Gender	Female	253 (94.4)
	Male	15 (5.6)
Education	College	128 (47.8)
	University	140 (52.2)
Health status	Unhealthy	3 (1.1)
	Average	50 (18.7)
	Healthy	215 (80.2)
Interpersonal relationship	Bad	0 (0.0)
	Average	113 (42.2)
	Good	155 (57.8)
Religion	Protestant	48 (17.9)
	Buddhist	55 (20.5)
	Catholic	30 (11.2)
	Others	3 (1.1)
	None	132 (49.3)
Charge of clinical practice	Professor	47 (17.5)
	Head nurse and staff nurse	56 (20.9)
	Teaching assistant	6 (2.2)
	Professor and head nurse	154 (57.6)
	Professor and teaching assistant	3 (1.1)
	Part time lecturer	2 (0.7)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Very unsatisfied	10 (3.7)
	Unsatisfied	48 (17.9)
	Average	115 (43.0)
	Satisfied	66 (24.6)
Satisfaction of major	Very satisfied	29 (10.8)
	Very dissatisfied	4 (1.5)
	dissatisfied	26 (9.7)
	Average	81 (30.2)
Satisfaction of major	Satisfied	95 (35.5)
	Very satisfied	62 (23.1)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교수효율성 및 임상실습교육환경과의 관련성

교수효율성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에서 원조자로서의 유용성과 간호기술과의 관계($r=.100, p=.104$)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하위영역별로 보았을 때 교수효율성의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과 임상수행능력에 있어서 대인관계, 의사소통이 가장 높은 순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다음이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과 교육·협력($r=.276, p<.001$), 전문지식/능력과 전문직 발전($r=.276, p<.001$)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교육환경과 임상수행능력의 관계에서 학생만족은 임상수행능력의 모두 하위 영역과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원과 학생의 관계에서는 간호기술을 제외한 4개의 임상수행능력의 하위영역과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Table 2. Mean Scores for Teaching Effectiveness,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Variables	M±SD	
Teaching effectiveness	Professional knowledge and capability	3.49± .56
	Interpersonal relationship/communication	3.11± .59
	Availability as a supporter	2.83± .71
	Encourage and support	3.05± .73
	Teaching method and evaluation	2.97± .62
	Total	3.09± .53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Staff-student relationships	2.82± .77
	Hierarchy and ritual	2.82± .71
	Nurse manager commitment	3.16± .58
	Patient relationships	3.30± .57
	Student satisfaction	3.36± .72
Total	3.09± .50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Nursing process	3.80± .57
	Nursing skill	4.07± .71
	Education/cooperation	2.93± .67
	Interpersonal relationship/communication	3.91± .72
	Professional develop	3.98± .63
Total	3.94± .52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동분위기와는 간호과정($r=.156, p=.011$)과 전문직 발전($r=.178, p=.003$)과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간호관리자의 수행에서는 교육·협력($r=.200, p=.001$), 대인관계, 의사소통($r=.210, p=.001$), 전문직 발전($r=.200, p=.001$)과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다. 환자와의 관계에서는 간호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과 모두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의 검증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0.1이하인 변인이 없었으며 분산팽창계수(VIF)가 10을 넘는 변인이 없어서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교수효율성, 임상실습교육환경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잔차의 등분산성, 정규분포성,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Durbin Watson 검정을 통해 잔차 분석 결과 1.706로 2에 가까워 인접한 오차항들이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차한계(tolerance)가 둘 다 .640으로 0.1이상이었고, 분산확대인자(VIF)가 1.562로 10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잔차의 등분산성과 정규분포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효율성과 임상실습교육환경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교수효율성($\beta=.171, t=2.410, p=.017$)과 임상실습교육환경($\beta=.176, t=2.321, p=.021$) 모두 임상수행능력에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회귀분석모형은 유

Table 3.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according to Teaching Effectiveness and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N=268)

		Nursing process	Nursing skill	Education/cooper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communication	Professional develop
		r (p)	r (p)	r (p)	r (p)	r (p)
TE	Professional knowledge and capability	.140 (.022)	.207 (.001)	.238 (<.001)	.245 (<.001)	.276 (<.001)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munication	.200 (.001)	.148 (.015)	.276 (<.001)	.285 (<.001)	.230 (<.001)
	Availability as a supporter	.162 (.008)	.100 (.104)	.167 (.006)	.153 (.012)	.137 (.025)
	Encourage and support	.214 (<.001)	.150 (.014)	.237 (<.001)	.176 (.004)	.189 (.002)
	Teaching method and evaluation	.189 (.002)	.147 (.016)	.184 (.002)	.202 (.001)	.226 (<.001)
CLE	Staff-student relationships	.201 (.001)	.045 (.468)	.176 (.004)	.148 (.016)	.240 (<.001)
	Hierarchy and ritual	.156 (.011)	.007 (.903)	.085 (.165)	.068 (.264)	.178 (.003)
	Nurse manager commitment	.115 (.059)	.084 (.168)	.200 (.001)	.210 (.001)	.200 (.001)
	Patient relationships	.122 (.047)	-.010 (.866)	.122 (.046)	.264 (<.001)	.175 (.004)
	Student satisfaction	.299 (<.001)	.187 (.002)	.253 (<.001)	.219 (<.001)	.336 (<.001)

TE=Teaching Effectiveness; CLE=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Table 4. Influence Factors on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N=268)

Variable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β	S.E	Beta		
(Constant)	2.871	.206		13.94	<.001
Teaching effectiveness	.171	.071	.175	2.40	.017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176	.076	.169	2.32	.021

R²=.095, Adj R²=.088, F=13.93 (.000)

의하였으며(F=13.932, p<.001), 8.8%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간호교육에서 특히 임상실습교육은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러한 임상실습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므로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전략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교수효율성, 임상실습교육 환경 및 임상실습수행능력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교수효율성과 임상실습교육환경이 임상실습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으로써 간호대학생들의 효율적인 임상실습교육에 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교수효율성은 일개대학 3년제 2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Choi, Jo와 Kim (2001)의 연구결과와 4년제와 3년제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u 등(2008)의 연구결과보다는 약간 낮은 점수이며, 4년제와 3년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 (200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하위영역으로는 전문지식과 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 Yu 등(2008)과 Choi 등(2001)의 결과와 일치하며 원조자로서의 유용성이 가장 낮게 나타나 Yu 등(200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임상실습지도자가 전문지식과 능력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생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격려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함을 나타낸 결과로서(Kim, 2006), 임상실습교수는 접근하기 쉬우며 학생들에게 유용하고 적절한 기대와 원조자의 역할 및 격려와 지지를 제공해 주며, 임상능력을 갖춘 좋은 모델이 되는 것과 간호학문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학생을 가르쳐야 한다(Choi, 2005).

임상실습교육환경은 Han (2010)의 연구결과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으로는 학생만족이 가장 높았으며 직원과 학생과의 관계와 병동분위기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Han

(2010)의 연구결과에서 병동분위기가 가장 높고 학생만족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대상자와 임상실습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효과적인 임상실습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임상실습교육환경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임상실습교육환경은 간호대학생들이 실습시 인지하는 직원과 학생의 관계, 병동분위기, 간호관리자의 수행, 환자와의 관계, 학생 만족에 대한 항목들로 이루어져 임상실습에 간호학생들의 전반적인 평가를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간호교육자가 효율적인 실습을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Dunn & Hansford, 1997).

임상수행능력은 3년제 간호과 2학년을 대상으로 한 Yang과 Park (2004)의 연구결과와 3년제와 4년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Choi (2005)의 연구결과보다 약간 높으며 3년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Choi, E. H. (2009)의 연구결과와는 유사하다. 하위영역에서는 간호기술과 전문직 발전이 높게 나타났으며 간호과정과 교육협력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Choi (2005)와 Ko (200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간호기술과 간호과정이 가장 낮게 나타난 Cho (2005)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이는 교과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간호과정에 대해 학습하여 간호과정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임상실습교육이 주로 관찰과 기술적 영역에 치중하고 있어 간호대학생들이 간호과정을 실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지속적인 간호과정에 대한 강화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준 결과이다(Choi, 2005; Choi, E. H. 2009).

교수효율성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를 하위영역별로 보았을 때 원조자로서의 유용성과 간호기술을 제외한 모든 항목들 사이에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수효율성이 높을수록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임상실습 교수자의 역량에 따라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낸다는 결과로 Choi (200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Yang (2000, 2009)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교수효율성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항목이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임상실습지도자가 갖추어야 하는 역량이 전문적 지식과 능력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원조자로서의 유용성, 격려와 지지 등의 중요성을 나타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임상실습교육환경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에서 하위영역별로 보았을 때 환자와의 관계와 간호기술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몇 개의 하위항목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많은 영역에서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학생만족과 임상수행능력의 모든 하위항목과는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과 임상실습교육환경과는 많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효과적인 임상교육

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수효율성, 임상실습교육환경 및 임상수행능력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근거로 한 교육전략이 필요함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수효율성과 임상실습교육환경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수효율성과 임상실습교육환경 모두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8.8%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Makaren 등(Kim 2006에 인용됨)의 연구에서 새롭고 스트레스적인 두려운 임상환경에 직면했을 때 실습지도자의 태도에 따라 간호대학생들의 학습능력이 달라진다는 결과와 간호기술과 지식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임상실습교육환경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지한다(Chan, 2001).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의 바람직한 교수효율성과 최적의 임상실습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켜 효율적인 임상실습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반면 교수효율성과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만족도와 관계(Choi, 2005; Kim, 2006)에 관한 연구들은 있으나 이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어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설명력이 8.8%로 낮게 나타난 것은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교수효율성과 임상실습교육환경 외에는 다른 많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을 규명하여 총체적인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본 연구에서는 교수효율성과 임상실습교육환경은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규명함으로써 교수효율성과 더불어 임상실습교육환경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임상실습교육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수효율성, 임상실습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실습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적합한 실습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두 개의 광역시에 있는 4개의 대학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간호대학생이 자가 평가하였으므로 실제적인 수행능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자가 평가와 함께 다른 평가자의 평가도 포함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수효율성, 임상실습교육환경 및 임상수행능력의 관계를 확인하고 교수효율성과 임상실습교육환경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들이 인지하는 교수효율성, 임상실습교육환경 및 임상수행능력은 중간정도로 나타났으며 교수효율성과 임상실습교육환경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도 높았다. 회귀분석결과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은 교수효율성과 임상실습교육환경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 8.8%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일정 수준의 간호수행능력을 갖춘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 함양이 요구되며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교수효율성과 최적의 임상실습교육환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간호대학생뿐만 아니라 간호사 및 실습지도자를 포함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며, 교수효율성과 임상실습교육환경을 고려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Adams, V. J. (2002). Consistent clinical assignment for nursing students compared to multiple placem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1*, 80-82.
- Barrett, C., & Myrick, F. (1998). Job satisfaction in preceptorship and its effect on the clinical performance of the precepte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7*, 364-371.
- Chan, D. (2001). Development of an innovative tool to assess hospital learning environment. *Nurse Education Today, 21*, 624-631.
- Cho, H. S. (2005).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1*, 222-231.
- Choi, E. H. (200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dentity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5*, 15-21.
- Choi, G. Y.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regarding clinical practice environment and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21*, 129-139.
- Choi, H. Y. (1992).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clinical performance and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 Choi, K. O., Jo, H. S., & Kim, C. Y. (2001). The teaching effectiveness of preceptorship on clinical nursing education. *Bulletin of Gachongil, 29*, 51-58.
- Choi, M. S. (200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effectiveness of clinical nursing education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Clare, J., White, J., Edwards, H., & van Loon, A. (2002). *Curriculum, clinical education, recruitment, transition, and retention in nursing*. AUTC Phase One Final Report, Flinders University, Adelaide, Australia.
- Close, L. Koshar, J. H., & Del Carlo, T. (2000). Clinical collaborative model: A new twist on old challenge. *Nurse Educator, 25*, 25-27.
- Dunn, S. V., & Burnett, P. (1995). The development of a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scal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2*, 1166-1173.
- Dunn, S. V., & Hansford, B. (1997).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 perceptions of their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5*, 1299-1306.
- Erdfelder, E., Faul, F., & Buchner, A. (1996). G power: A general power analysis program. *Behavior Research Methods, 28*, 1-11.
- Han, J. Y. (2010).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CLE).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12*, 2595-2607.
- Jerlock, M., Falk, K., & Severinsson, E. (2003). Academic nursing education guidelines: Tool for bridging the gap betwee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ursing & Health Science, 5*, 219-228.
- Kim, M. A. (1996). *A study of teaching effectiveness on clinical nursing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M. A., Nam, S. H., & Kim, H. E. (2004). Change in student nurses' perception between initial and final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1*, 21-30.
- Kim, Y. H. (2006). Autonomy, teaching effectiveness,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for fundamentals nursing clinical practice in student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3*, 6-14.
- Ko, K. J. (2003).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dong University, Gangneung.
- Lee, W. H., Kim, J. J., Yoo, J. S., Huh, H. K., & Lim, S. M. (1990). A research tool for clinical performance of nursing students. *Bulletin of Yonsei Nursing, 13*, 17-27.
- Midgley, K. (2006). Pre-registration student nurses perception of the hospital learning environment during clinical placements. *Nurse Education Today, 26*, 338-345.
- Nahas, V. L., & Yam, B. M. C. (2001). Hong Kong nursing student's perception of effectiveness clinical teacher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0*, 233-237.
- Reeve, M. M. (1994).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effectiveness of clinical instructor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3*, 15-20.
- Yang, J. J. (2000). The influencing factors on nursing perspectiv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6*, 276-286.
- Yang, J. J. (2009). The influencing factors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5*, 159-165.
- Yang, J. J., & Park, M. Y. (2004). The relationship of clinical competency and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0, 271-277.

Yu, P. S., Kim, E. S., Kim, H. K., Lee, S. H., Hyoung, H. K. Eom, A. Y., et al. (2008). The perception degree of teaching effectiveness of nurses and nursing students on clinical nursing practicu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4, 311-320.

Zhang, Z., Lux, W., Arthur, D., & Wong, T. (2001). Nursing competencies; Personal characteristic contributing to effective nursing performanc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3, 467-476.

Effects of Teaching Effectiveness and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Han, Ji-young¹⁾ · Park, Hyeon-sook²⁾

1) Full 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Silla University

2) Full 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Kyungwoon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teaching effectiveness and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the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Method:**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268) enrolled in one of 4 universities in 2 cities completed a survey questionnair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the SPSS/Win 11.0 program. **Results:** The mean score for teaching effectiveness was 3.09 (\pm .53) on a 5-point scale, for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3.09 (\pm .50) on a 5-point scale, and for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3.94 (\pm .52) on a 6-point scal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teaching effectiveness and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The regression model explained 8.8% of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Teaching effectiveness and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that teaching effectiveness and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be considered when developing strategies to increase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Key words : Nursing Student, Clinical Circumstances, Effectiveness, Clinical Competence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Park, Hyeon-sook

Department of Nursing Kyungwoon University

55 beonji indeok-ri Sandong-myeon Gumi-si Gyeongsangbuk-do 730-739, Korea

Tel: 82-54-479-1380 Fax: 82-54-479-1382 E-mail: phs@ikw.ac.kr